

PBS 폐지 이행을 통해 출연연을 임무 중심 국가거점으로 육성

- 과기정통부, 「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 발표
- Post-PBS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도기 단계에서의 구체적 전략 수립
- 연구 전념을 위한 안정적 인건비 지원 강화, 임무 중심 연구체계 고도화

【관련 국정과제】 26. 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서면, 6.22.~6.24.)하여 「PBS 폐지 추진 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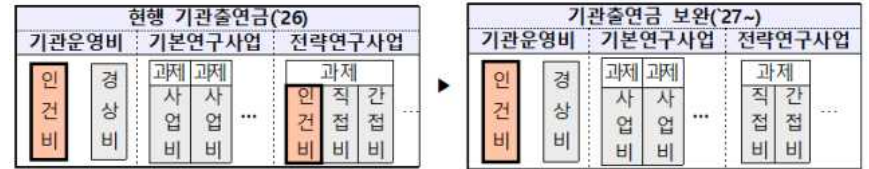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월 18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PBS 폐지를 본격 추진 중이다.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수주 경쟁에서 탈피하도록 기관출연금으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고, 정부·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출연연이 주도하여 기획하는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였다.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PBS 폐지는 ① 연구 전념을 위해 안정적인 인건비를 지원하고, ② 인건비 보장함에 따라 국가적으로 필요한 연구를 중점 수행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동 방안은 PBS 폐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환경 변화,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PBS 폐지의 취지를 살리고 Post-PBS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도기 단계에서의 이행방안을 고도화한 것이다.

첫째, 연구 전념을 위한 인건비 안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기관출연금과 계속과제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되, 현재 기관출연금 내 기관운영비와 전략연구사업으로 이원화된 인건비 계상구조를 '27년부터 기관운영비로 일원화

한다. 또한, 기관출연금과 계속과제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함에 따라 신규 정부수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사업 목적 달성에 출연연 참여가 필수적인 경우 등 신규수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 아래 예외적 허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연구인력의 유치 및 안정적 연구 지원을 위한 출연연의 전반적인 처우수준 개선도 검토한다.

[출연연 인건비 계상구조 고도화]



둘째, 국가적 미션을 수행하는 임무 중심 연구체계를 고도화한다. 국가 전략 이행을 위해 출연연이 수행할 국가적 임무를 정립하고, 임무에 따라 기관별 R&D 포트폴리오(5년) 수립 및 출연연 R&D 재구조화(기본연구-전략연구-수탁)와 연계한다. 또한, 임무에 기반한 전략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충분한 기획시간을 확보하고, 평가, 성과관리, 환류 등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셋째,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조성한다. Post-PBS의 정착을 위한 과기출연기관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연구회 혁신, 윤리경영 확립 등 연구회 역할 및 출연연 자율성 확대에 걸맞은 책임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구혁제 제1차관은 “PBS 폐지는 출연연이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출연연이 국가적 미션을 중심으로 혁신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주요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 연구기관혁신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서기관	조종영 장정인	(044-202-4750) (044-202-4751)
-------	----------------------------	------------	------------	------------	----------------------------------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